내게 악역, 내가 악역

(이사야 19:1~25)

1.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2.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3.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4.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학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5.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내게 악역, 내가 악역>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내게 악역, 내가 악역'
애굽 쇠퇴에 관한 예언이 주어지는데 마지막에 무척 특이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애굽과 앗수르와 선민 유다가 서로 화목하게 교류하며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열방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내게 악역, 내가 악역'이라는 말은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과 나 때문에 억울해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남을 억울하게 하는 악역을 담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악역이 없으면 긴장감도 없고 흥분도 되지 않고 재미가 없습니다.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면 배우 이성재 씨가 조규환이라는 인물의 악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악역 연기를 잘해서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고요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까지 했고, 이성재 씨가

타고 다니던 아우디 차량의 매출이 한동안 급격히 줄어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너의 목소리가 들려”라는 드라마에서 배우 정웅인 씨가 민중국이라는 인물의 악역을 맡았습니다. 이 분은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쉬는 날 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누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 연쇄살인마로 등장해서 주인공을 괴롭혔는데, 이걸 보고 화가 난 시청자가 마트에서 정웅인을 보고는 경찰에 살인마가 나타났다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악역은 드라마에 큰 재미를 줍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악역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재미는커녕 부담스럽고 밉고 두려울 뿐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인생의 평강과 행복을 철저하게 갉아먹는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평생 나를 향한 악역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녀마저도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악역이 등장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질 정도입니다. 직장 상사가 악역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친한 친구가 배신을 통해 악역이 되기도 합니다.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이 죽기 살기로 괴롭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서지간이나 부모형제도 악역일 수 있습니다.
설령 이러한 악역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남에게 악역이 된다면 이것 또한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군다나 남이 나에게 악역을 담당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지만, 내가 악역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이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악역이 없고 나도 악역이 되지 않고서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악역 없는 삶은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는 애굽의 쇠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25절에서는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라고 하면서 세 나라가 복을 받아 화목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듣고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앗수르는 적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해 ‘일본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이상할 것입니다. 당시에 원수의 나라 앗수르에게 이런 축복의 예언을 한다는 것은 매국노로 몰려서 돌을 맞아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언의 특이한 점은 비단 마지막 구절뿐만이 아닙니다.
1~17절까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는데, 멸망이 아닌 쇠퇴가 이루어질 것이 예언됩니다. 18~22절까지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애굽 내부에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는 이들이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기에 장망성(將亡城)으로 불리는 성읍을 포함해 다섯 성읍이나 됩니다. 이 성읍들이 여호와 신앙의 집단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성소가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까지 나옵니다.

23~25절에 보면 애굽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남 유다를 중심으로 북쪽의 앗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교류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상에 선포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과정상 앗수르는 이미 멸망한 뒤의 내용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앗수르를 언급하면서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1~17절을 살펴봅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아 쇠퇴할 것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심판을 받아 쇠퇴하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애굽이 교만하다든지 악하다든지 우상숭배를 했다든지 이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파멸될 것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을 이유로 지적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깊은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 쇠퇴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남 유다는 물론이고 앗수르나 애굽의 역사 또한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는 임의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준점을 정해놓으시고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물의 파장이 퍼져나가듯이 주변으로 통치를 확산시켜 나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통치의 원칙을 이해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의 자체 내의 잘못을 언급하지 않고 쇠락을 예언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남 유다 백성들은 국가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남쪽의 애굽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애굽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이 쇠락하게 되는 이유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남 왕국 유다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보다 남쪽에 있는 애굽을 신뢰하는 경향이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남 유다를 다스리시고 남쪽의 애굽을 다스리실 수가 없습니다. 남 유다가 중심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점을 두고 계획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려 하시는데 이 중심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 유다가 뚜렷한 기준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거나 우선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작정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남 유다는 어떤 국가적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우선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중심점으로 삼으셔서 물의 파장이 퍼져나가듯이 주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흔들렸고 그 원인들 중에 애굽에 대한 의존이 있었습니다. 이전 설교에서 위기 상황을 크게 실감하여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애굽에 손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면을 알았기에 애굽이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쇠퇴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쇠퇴는 남 유다와의 관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남 유다가 하나님의 중심점이 되어드리지 못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애굽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은 채 쇠퇴하는 모습만을 1~17절까지 나열해 나갑니다.

이것은 남 왕국 유다에게 주는 경고인 셈입니다.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져버리고 남쪽의 애굽에게 손을 벌리는데, 그 애굽조차도 쇠퇴하여 기댈 수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대해 가지신 본심은 23~25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시며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것도 애굽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방법에서 중심점으로 삼으실 자들로써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삼으셔서 북으로는 앗수르 남으로는 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를 진행시키고 확산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는 당시 상황에서는 돌에 맞을 소리를 하는 셈이었습니다. 선민을 핍박하는 앗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존하는 것처럼 남 유다가 애굽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쇠퇴할 것이기에 더 이상 의존치 말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욕을 바가지로 먹을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미국을 의지하느냐고 외치고 다닌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어떠한 의견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이사야 당시에는 이러한 자유가 없었습니다. 유다가 의존하고 있던 애굽이 파리하게 쇠퇴할 것이라는 말은 할 수 없는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8절 이후를 보면 애굽 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실 6세기 정도가 지나고 나서 실제로 애굽에 유대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여호와 신앙에 연합한 현지인들이 유대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성읍이 다섯 곳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또한 성소가 만들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BC.160년경에는 성소가 만들어지고 AD.71년까지 200년 동안 유지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북 아프리카와 알렉산드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왕성하게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당대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려고 했던 주제는 선민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중심이 되지 못했고, 그 결과 본의 아니게 애굽을 쇠퇴시키는 악역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지막 25절에는 남 유다를 중심점으로 북쪽의 앗수르와 남쪽의 애굽이 교류하며 잘 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선민들이 영적인 중심이 되어야 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심점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중심점이 될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나 앗수르조차 백성으로 여기신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주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실 수 없습니다. 본래라면 나를 중심으로 물의 파장이 퍼져나가듯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해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심점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선 주변의 모든 조건과 상황과 사람들을 중심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본의 아닌 소모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선민들이 바로 섰다면 앗수르에게 까지도 하나님의 은총적 역사의 주관하심이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 유다가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앗수르가 유다를 바로 세우기 위한 악역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악역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들이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쇠락을 강요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애굽과 같은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자들에 대해 내가 악역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좋아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쇠퇴하게 되고 불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형통하기를 바라며 닦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닦달을 당하는 자녀야 말로 천하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모라면 그 가정의 중심점이 되어주어야만 합니다. 중심점이 되는 것은 배우자보다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실감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를 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히 만족한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더 크고 우선시하여 만족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중심점이 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은총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점이 되어야 될 내가 흔들리면 내게 악역이 생겨나고 또 내가 악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남 왕국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듯이 내가 자녀를 의지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쇠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보다 자녀를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자녀에게 쇠퇴함을 주

시고 불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더 크고 더 먼저 의식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왕들이 탐냈던 아름다운 아내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크고 우선적으로 여겨서 바치기를 거부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중심점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이삭의 인생을 고통으로 가득 차게 하셨을 것입니다. 치안부재의 상태에서 권력자들로부터 아내 사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라는 만국의 어머니가 되기는커녕 이런 저런 일을 당하면서 아브라함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심이 되지 못했다면 이삭이나 사라는 원치 않는 악역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고 원치 않는 불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대상이 있고 마음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면, 이제 그 대상은 나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더 먼저 손을 뻗고 기쁨과 만족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죽게 생겼고 내가 악역입니다.

애굽이 쇠퇴한 이유는 남 유다가 이들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애굽조차도 '내 백성아'라고 부르시길 원하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만 선민들을 우선으로 택하신 이유는 이들이 중심점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나머지 이방나라를 버리기 위해 선민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선민만이 구원을 받는다면 이방 나라 속에 숨어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서 중심점으로 삼으시고 이제 골라내시고 찾아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민으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북 왕국 이스라엘은 열두 지파 중에 열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 왕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열 지파로 이루어진 북 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선민으로 불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선택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고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북 왕국 이스라엘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더 크게 의식하는 삶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으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중심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올바른 중심점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소모적인 역사를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악역 삼으셔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게 고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들에 악역을 담당시켜서

나를 공격하게 하시고 괴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다 나를 중심점으로 옮겨 놓기 위함이고 올바른 기준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를 중심점으로 삼으셔서 주변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남 유다가 바른 중심이 되었다면 앗수르와 애굽까지도 서로 화목하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언한 대로 남과 북으로 복음은 강하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당대 사람들에게 이 예언은 이룰 수 없는 아쉬움으로밖에 남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바른 중심점이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은총적 통치가 남과 북으로 확장되면서 세 나라가 함께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이사야는 예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악역을 담당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나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좋아해서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는 내가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고 우선시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고 우선시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죽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의 중심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셔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내 주변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통치가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